

## 수상

### 1) 최석채선생 IPI '언론자유 영웅' 선정

최석채(崔錫采)선생 '언론자유 영웅' 기념관이 2000년 11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제막됐다.

이 기념관은 세계언론인협회(IPI)가 2000년 5월 최석채 선생을 '20세기 언론자유 영웅 50인' 중 한사람으로 선정한 것을 기리기 위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방송협회, 기자협회, IPI한국위원회, 한국언론재단이 고인의 83회 탄생일(11월 21일)을 맞아 공동 제작했다. 기념관은 내셔널프레스클럽 벽에 붙여져 영구보존된다.

제막식에는 남중구 편협회장을 비롯한 공동주관 6개 언론단체 대표와 김수환 전 국회의장, 김수환 추기경, 강원룡목사, 고병익 전 서울대총장 등 언론 정치 문화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뜻을 기렸다.

이날 행사는 차인태 경기대 교수의 사회로 서희건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고인약력 및 기념관제작 경과보고, 기념관 제막, 고인 회고, 최석채 선생 장남 명원씨의 인사말, 김용술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의 건배 제의 순으로 진행됐다.

IPI는 2000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언론 자유수호 및 증진에 공헌한 작고, 또는 생존한 '언론자유 영웅' 을 선정, 명예의 전당에 헌정하고 이들의 업적을 책으로 발간

하기 위해 각국 언론단체에 추천을 요청했었다.

이에 편협은 1999년 2월 10일 제 1차 회장단회의를 열고 IPI(국제언론인협회)가 선정하는 ‘언론자유 영웅’ 후보로 고崔錫采선생과 고千寬宇선생을 추천했었다.

최석채 선생은 25세때이던 1942년 잡지사 기자로 언론과 인연을 맺은 이래 대구매일신문 등에서 편집국장 논설위원 주필 등으로 활약했으며 제3대 한국신문편집인협회장 MBC회장 대구매일신문 명예회장 등을 역임했다.

대구매일신문의 주필시절이던 56년 9월 13일 그는 ‘학도를 도구로 이용 말라’는 제하의 사설로 필화를 겪었으며 3·15부정선거직후 ‘국민이여 총 쫓기하자’는 사설을 써 4·19의 불을 댕겼다.

1963년 3월 그는 일부 군인들이 서울 시내에서 군정연장데모를 하자 ‘몰지각한 일부 군인을 규탄한다’는 사설을 써 다시 관심을 모았다.

그를 언론계의 큰 별로 기억케 하는 보다 주목할 만한 사건은 편집인협회부회장 시절이던 1964년 공화당 정권이 언론통제를 위해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제정, 시행하려하자 이에 정면 대결해 저지시킨 일이다.

천관우 선생은 치열한 역사의식과 함께 호방하면서도 강직한 성품을 지닌 언론인, 역사학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날을 오늘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역사학자로서의 길과 눈앞의 오늘을 역사로 기록하는 언론인으로서의 직분을 잘 조화시켰던 ‘史言 양립의 재목’으로 평가됐다.

## 2) 月南언론상 수상

독립문화상 기금관리위원회가 「月南언론상」 1964년도 수상자로 편협을 결정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12월 16일 편협운영위원회는 토의 끝에 수상하기로 의결했다. 편협은 12월 28일 상과 부상으로 금메달을 받았다. 이 상은 사상계사가 제정했다.

## 상 장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위의 협회는 창설 이래 자유언론의 창달을 위한 정신과 목적에 투철하였으며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슬기로운 활동을 전개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금년 여름에는 이른바 언론윤리위원회법의 강행으로 인하여 야기된 언론과동에서 그 법이 위헌적인 악법임을 규정하고 이를 폐기시키는 데 선봉적인 역할을 하여 법시행을 저지시킨 바 이는 한국자유언론사에 길이 빛날 공적이므로 이에 1964년도 월남언론상 수상자로 결정하여 본상을 수여함.

1964년 12월 28일

독립문화상 기금관리위원회 위 원 장 이 회 승

### 3) 서울시문화상 수상

1965년 3월 8일, 서울시문화위원회가 1964년도 서울시문화상(언론) 수상자로 편협을 선정하는데 대해 3월 9일 편협운영위원회는 이의 수상여부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결의토록 했다. 3월 15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는 수상여부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대립, 결국 무기명 투표로 재석 17명 중 찬성 11표, 반대 6표로 수상하기로 결정했다. 3월 18일 금메달과 함께 수상했다.

## 상 장

한국신문편집인협회

귀 협회는 언론분야에 있어 우리나라 문화향상 발전에 진력하여 그 공헌한 바가 현저하였으므로 이에 서기 1964년도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드립니다.

서기 1965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김원규